

# 영호남 금융 벽 허문다...광주은행-iM뱅크 '달빛동맹'

양사 임직원 50명 참여 교류 행사 펼쳐  
대구 근대골목 '쓰담 투어'·역사관 견학  
정일선 은행장 "다양한 분야 상호 협력"



정일선(가운데) 광주은행장과 강정훈 아이엠뱅크은행장이 함께 지난 19일 교류행사의 일환으로 '쓰담 투어(쓰레기를 담으며 걷는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이 영호남 금융권 화합을 위해 상생 행사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19일 대구시 일대에서 iM뱅크(아이엠뱅크)와 함께 양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6 달빛동맹 교류 행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5년 광주은행과 iM뱅크(舊 DGB대구은행)가 체결한 '달빛동맹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양사 임직원들이 담양 죽녹원 일원을

찾아 교류의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올해는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상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달빛동맹 교류 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영·호남 금융권의 화합과 지역 상생을 상징하는 지속적인 연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광주은행과 iM뱅크의 각 은행 봉사단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에는 대구의 대표 관광 명소인 근대골목 일대에서 '쓰담 투어'를 진행했다.

'쓰담 투어'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는 환경정화 활동으로, 봉사단원들은 정라인덕, 선교사주택길, 3·1만세운동길 등을 함께 걸으며 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대구 근대골목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

에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후에는 근대 대구의 모습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구근대역사관'을 방문해 대구 지역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982년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으로 건립된 역사적 공간에서 영호남을 대표하는 두 은행의 임직원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공유하며 지역 간 벽을 허물고 동반 성장을 위한 소통의 폭을 넓혔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광주·대구 간 교류를 통해 영호남 금융권의 협력과 상생의 의미를 더욱 깊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며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 광주상의, 지역 중기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

나라장터 등록 등 2026년 실무교육 개최  
전자입찰·다수공급자계약 활용 등 제도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1시 광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공공조달 실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공공조달시장은 2024년 기준 약 225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9%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으로 성장했다. 또 나라장터 거래규모와 조달 참여업체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 확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지역 중소기업은 정보 부족과 전문인력·실무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및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전자입찰 및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활용 및 이해도 제고를 통해 최근 고유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지역 기업의 공공 및 민간 입찰에 대한 낙찰률과 공공조달 납품기회를 높여 매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광주지역 기업체 임직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전자입찰 실무교육, 2부 다수공급자계약 실무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진

행했으며, 투찰금액 산정 및 낙찰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등을 안내하며 참여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광주상의는 지난 2010년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사업과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연여개 기업>이 약 1조 원 규모의 낙찰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실적을 기록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임채만 기자

## 광주TP, 박승준 신임 정책기획본부장 임명

"현장 중심 정책·기업지원 강화에 최선"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는 박승준(사진 오른쪽)정책기획본부장을 신규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TP 정책기획본부는 지역특화산업진흥계획과 지역대표산업 정책 수립,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규제자유특구 기획 등 지역 산업정책 기획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

이와 함께 지역산업 조사·분석, 산업정보 유통, 거점기능지원사업 정책기획 플랫폼 운영, 기관 경영전략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예산·성과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박승준 신임 정책기획본부장은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첨단소재공정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지냈으며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정혁신시물레이션센터 연구교수와 산업기술정책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

또한 2024년 공정혁신시물레이션 사업 관련 유공으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으며, 2018년에는 광산업 발전 유공으로 광주시 시장 포상을 받는 등 관련 분야 전문성과 공로를 인정받



았다.

광주TP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AI·미래차·에너지 등 지역 전략 산업 중심의 산업정책 발굴과 기업지원 체계를 한층 체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준 정책기획본부장은 "광주TP가 지역 산업혁신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과 기업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 중진공호남연수원, 곡성장미축제 맞아 숙소 무료 개방

지역 상생 위해 29-30일 1박2일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20일 "오는 22일 막을 올리는 제16회 곡성세계장미축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을 위해 축제 방문객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연수원 기숙사를 무료 개방하고 맞춤형 안전·ESG 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개방은 축제 기간 중 29일부터 30일

까지 1박 2일로 운영된다. 단순 숙소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정책연수도 병행해 대국민 산업안전·ESG 인식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시설개방 및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8일까지 구글폼(QR코드)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개방 규모는 총 50객실(2인실)로 선착순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한 포스터를 확인하거나 호남연수원 (062-250-30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태호 기자

전경호 호남연수원장은 "이번 시설개방이 곡성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여정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연수원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공자원을 개방해 중소기업 인제 양성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호남연수원은 지난 5월 초에 개최된 '2026년 담양 대나무축제'에서도 50개 객실 개방과 안전·ESG교육을 통해 76명의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묘 이감 · 개강**

가족묘 조성 / 개강 / 묘지이감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감 전문 ☎ 문의) 062-464-3466